

LG, 인턴사원 80% 정규직 전환

2009년 410명 중 340명 채용 ... LG화학은 하반기 50명 선발

LG그룹이 인턴사원의 80%를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다.

LG그룹은 2009년 선발하는 인턴사원 680여명의 80%에 해당하는 55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고 6월 21일 발표했다.

대기업이 인턴사원의 80%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드문 일이다.

LG그룹은 2009년 상반기 전자, 화학, 생활건강, 하우스시스, 생명과학, 텔레콤, 데이콤, 파워콤, CNS 등 계열사 별로 선발한 410여명의 인턴사원 중 80% 이상인 34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하고 현재 선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

하반기에 선발하는 270여명의 인턴사원도 80%인 21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.

하반기 예정하고 있는 인턴사원 채용 규모는 LG화학 50명을 비롯해 LG생명과학 15명, LG텔레콤 100명, LG파워콤 50명, LG CNS 20명 등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6/22>